“매월 광주불교 운영위 개최할 것”

광주불교聯, 회장 도성 스님 1월 18일 언택트로 취임식

유튜브 영상 통해 행사 대체
사찰에 배포 하고 활동 당부
빛고을관등회 활성화도 제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가 이취임식을 대신해 배포한 도성 스님의 유튜브 취임영상.

광주불교를 이끌어갈 광주불교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영상으로 봉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월 18일 “광주불교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대신 진행한다”고 밝히고 10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을 광주지역 사찰과 단체에 배포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당초 1월 16일 예정이었던 성도재일 연합법회와 이취임식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영상촬영과 유튜브 배포라는 비대면 이취임식으로 진행했다.

도성 스님은 영상에서 현 코로나19사태에 대해 “모든 생명이 결국 인과의 원칙과 하나의 몸체와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연기적 가치관을 통해 보아야 결국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 불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화두삼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성 스님은 “광주불교계 또한 많은 어려움과 당면과제가 놓여있다. 저는 앞으로 2년간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소임을 통해 광주불교 사부대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사부대중의 화합”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광주불교를 다함께 만들어갈 모든 스님들과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광주에 사는 모든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며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확대하겠다.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모두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의 주인이 되는 회의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빛고을관등회 또한 1300여년 이어온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역대 사부대중이 이어온 전통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성 스님은 특히 구랍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빛고을관등회도 연등회 지방행사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문화재청 책자에도 기록되었다”며“앞으로 더욱 발전된 행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의 연합회장 소임을 내려놓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은 이임사 영상에서 “매월 1월에는 원래 성도재일 연합법회와 광주불교연합회 이취임식을 봉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것도 시대의 한 자화상인 듯 하다”며, “지난 2년간 제가 회장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각 사찰 대덕 큰스님과 기획단장스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빛고을관등회와 같은 큰 행사에 아낌없는 참여를 해 주신 신도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도성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출가해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물외암, 보광정사, 광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양사 인사위원장, 광주 복암사 주지,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에 재직 중이다. 스님은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전통불복장 보유자(단체)로 불교전통의식의 대가이다.

조계종부산聯, 승보공양상 시상

회장상 안병선 복지건강국장 · 시장상 내원청소년단 등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 회장상 및 시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법회를 취소하고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진행한 뒤 시상식을 별도로 마련해 부산 시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제10회 성도재일기념 찾아가는 승보공양 시상식을 1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상을 시상했다. 수상은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이 받았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시민과 불자들을 대표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보살행을 실천한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장상 시상식은 16일 혜원정사에서 개최됐다. 수상자는 단체부문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며 개인부문은 백승완 부산보훈병원장이 수상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는 성도재일 당일인 1월 20일 BTN불교TV에서 특집방송으로 방영됐으며, 2월 12일 오후 7시 30분 설특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인연 찾아가는 승보공양(가제)’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성주사, 성도재일 입재법회



창원 성주사가 성도재일을 맞아 특별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1월 19일 ‘성도재일기도입재법회’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사진〉

기도입재에는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기도 및 소참법문이 이어졌으며 참선과 108배, 성도재일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도재일의 중요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정진을 하고자 봉행하게 됐다”며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참석한 대중의 지중한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에 한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정진으로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라 서원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정진으로 부처님을 따르고 실천할 것이다”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도록 가피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협, 수용자 사랑꿀떡 나눔

불교계와 원불교계 힘 모아 수용자에게 1400인분 전달



1월 19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진행된 불교와 원불교 사랑의 꿀떡 전달식.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가 새해를 맞아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꿀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불교와 원불교 교정협의회는 1월 19일 전주교도소(최병록 소장)에 사랑의 꿀떡 1400인분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안현숙 원불교 위원장, 유영 신부, 오성택 목사 등 교정협의회원들과 최병록 소장을 비롯한 전주 교도소 관계자, 마이산 탑사 탑밴드 봉사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꿀떡은 코로나로 수용자들이 힘든 수형 생활에 용기를 주고 다가오는 설을 생각하며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꿀떡을 맛 보여줌으로써 선한 마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 원불교가 합동으로 수용자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꿀떡을 준비했다. 수용자를 위해 정성껏 마련하고 전달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수용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함께 나눈 꿀떡을 즐겁게 먹으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현숙 원불교 위원장은 “종교간의 화합과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 모였다. 수용자들이 수형 생활에서 서로 도우며 상생하기를 바란다. 원불교인과 불교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만든 꿀떡이 수용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탑밴드 봉사단은 이날 전주소년원 150명분, 소년원 자립생활관 50명분, 엠마뉴엘복지관 50명분, 자애복지관 50명분의 꿀떡과 설명절 떡국용 떡쌀을 소년원 어머니회(김도은 위원장)에 전달했다.

이날 전주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은 광주교정창으로부터 수용자 사회복귀에 솔선수범하여 성심을 다해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최병록 전주교도소 소장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반 원불교, 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였다. 다종교 시대에서 나눔을 한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수용자들을 위한 복지를 우선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을 끝없이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제불교聯, 미얀마에 방역물품 전달



국제불교연합(이사장 재원)은 1월 21일 서울 미얀마대사관에서 미얀마 야자죠 고아원 1600명과 양곤불교대학 스님 1100명에게 전달될 K방역세트를 기부했다.〈사진〉 총 5000만원 상당인 K방역세트에는 KF94 마스크 6만장, 덴탈 마스크 6만장과 손세정제, 체온계, 방역장갑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 스님과 제주 선운정사 회주 현오 스님,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딴진 미얀마 대사 등 관계자들이 국제불교연합의 기부물품을 받았다.

재원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미얀마 사정을 듣고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특히 양곤의 스님들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번 방역물품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딴진 미얀마 대사는 “바간 복원 등에도 한국정부와 한국불교계가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 미얀마에 한국불자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Ⅱ·Ⅲ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Ⅰ·Ⅱ·Ⅲ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Ⅱ·Ⅲ**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Ⅰ·Ⅱ·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